



“내가 여기 없느냐, 네 어머니인 내가?”

2024 년 12 월 12 일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기 가련한 이가 부르짖자 주님께서 들으시어 모든 곤경에서 그를 구원하셨네” (시편 34,7). 우리 캘리포니아의 가톨릭 주교들은 그리스도의 양 떼의 목자로서 우리 가운데로 이주한 형제자매인 여러분들에게 심화되는 고통을 보고 듣고있습니다. 이런 불안한 시기에 우리와 우리 어머니 이신 교회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신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당신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불법체류자와 이주민 가족에 대한 대량 추방 및 급습을 하려는 위협은 우리 교구들 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모든 사람의 신성한 존엄성을 굳게 믿고있으니, 우리는 이 불안한 시기에 우리의 이주 형제자매, 가족 여러분과 함께 연대하고 동행하기로 약속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영적으로 인도하고, 정보와 자원을 모으고, 여러분의 존엄성과 가족의 단합을 위해 계속 옹호할 것입니다.

이 나라의 이민 시스템은 망가져 있습니다. 남부 국경에서의 혼란이 계속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의 시민들과 이 축복받은 땅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안정감과 평화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정책이 제정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공감과 배려를 반영해야 하며, 심각한 범죄자에 대한 유예 조치를 제공할 수는 없지만 폭력적이고 빈곤한 나라에서 피하여 온 사람들과 어린이들의 권리를 적절히 고려해야 합니다.

발생할 수 있는 정확한 문제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캘리포니아 전역의 가톨릭 자선단체(Catholic Charities)는 질문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신뢰할 수 있는 지원 역할을 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의 가톨릭 주교들의 웹사이트에 도 더 많은 정보가 입수되는대로 계속해서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California Catholic Confer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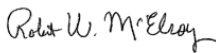
착한 사마리아인의 모범을 따라 (루카 10,34) 우리 가톨릭 공동체는 우리 중에서 가장 취약한 이웃에게 연민을 베풀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당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를 구현하며 외롭고 길을 잃은 이들에게 희망과 위로의 안식처가 되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달루페의 성모님께서 후안 디에고 성인에게 그가 하느님의 형상과 모습을 지녔음을 상기시켰듯이 우리 모두에게 오늘과 내일도 상기시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사랑하는 자녀이며, 민족이나 출신 국가와 관계없이 하느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돌보는 모습이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대변하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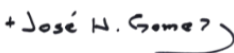
이 날은 과달루페의 성모님의 축일이며,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성모님께서는 연민, 보호, 사랑의 궁극적인 모성적 모범이시며, 후안 디에고 성인에게 테페약(Tepeyac) 언덕에서 말씀하신 대로 항상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No estoy yo aquí, que soy tu madre?" "내가 여기 없느냐, 네 어머니인 내가?
"너는 내 그늘 아래, 보호 안에 있지 않느냐? 나는 너의 기쁨의 근원이 아니냐?
"너는 내 망토 안, 내 품안에 있지 않느냐?
"무엇이 더 필요 하냐? 그 밖의 어떤 것도 너를 걱정시키거나 방해하지 못하게 하라." (Nican Mopohua).*

우리는 여러분을 아메리카의 수호 성인이신 과달루페의 성모님의 마음에 맡깁니다. 여러분이 성모님의 모성적 망토 안에서 위안을 찾기를 바라며, 그분의 존재와 중재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에 대한 태도가 자비롭고 겸손하게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Cardinal Robert W. McElroy
Diocese of San Dieg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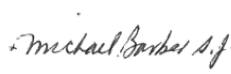

Archbishop José H. Gomez
Archdiocese of Los Angeles



Archbishop Salvatore J. Cordileone
Archbishop of San Francisc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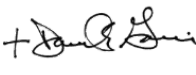

Bishop Oscar Cantú
Diocese of San Jose



Bishop Myron J. Cotta
Diocese of Stockton



Bishop Kevin W. Vann
Diocese of Orange



Bishop Michael C. Barber SJ
Diocese of Oakland


Bishop Joseph V. Brennan
Diocese of Fresno


Bishop Daniel E. Garcia
Diocese of Monterey


Bishop Alberto Rojas
Diocese of San Bernardino


Bishop Robert F. Vasa
Diocese of Santa Rosa


Bishop Jaime Soto
Diocese of Sacramento